

## 광주 예술단체 2곳, 문체부 지원사업 선정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집중 육성... 국·시비 2억4000만원씩 지원  
놀이패신명, '소년이온다' 모티브 80년-현재 연결 마당극 창작  
카메라타전남, '조화' 주제로 클래식 대중화·시민참여모델 구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6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지역 대표 예술단체인 '놀이패신명'과 '카메라타전남'이 선정돼 각각 국비 1억2000만원씩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역의 예술창작 기반을 강화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는 문체부 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62개 지역 102개 예술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41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 지원사업은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 의무화와 지원 조건 강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광주지역 예술단체 2곳은 지역 공동체와 문화자원을 연계해 '광주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패신명'은 1982년 창단 이래 마당극을 기반으로 한 창작 공연을 통해 지역성과 대중성을 결합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극장건으로 광주'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해 광주정신의 세계화와 K-마당극 정립을 통한 글로벌 예술단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놀이패신명'은 이번 공모에서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연계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원작(모티브)으로 1980년 오월과 현재를 연결하는 창작 마당극을 기획해 선정됐다.

'카메라타전남'은 2017년 창립해 수준 높은 클래식음악 연주와 교육·지역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해 온 단체다. 이 단체는 지역 작곡가들과 협업해 '김봉섭 작곡가-민주', '정현수 작곡가-무용' 등 광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을 발표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주예술의전당과 협력해 '조화(Harmony)'를 주제로 팝스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 민주 등 광주 정체성을 연계한 대중 친화형 공연 6편을 정례화해 시민 참여형 모델을 구축한다는 기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예술단체 2곳은 올해 한해 동안 창·제작 활동, 공연 프로그램 개발,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위한 국비 1

억2000만원과 시비 1억2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선정은 광주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과 예술적 성과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전국 무대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 나주문화재단, 2026년 첫 기획전시 '화가의 숲' 선보인다

나빌레라문화센터, 작은미술관 동시 전시로 자연과 공존의 메시지 전해

나주문화재단이 두 개의 역사적 문화 공간을 무대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첫 기획전시를 열어 '생태도시 나주'의 정체성을 예술 언어로 확장한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 이하 재단)은 2026년 첫 기획전시로 재불(在佛) 화가 홍일화 작가의 개인전 '화가의 숲(The Painter's Forest)'을 오는 2월 4일부터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나빌레라문화센터와 작은미술관(정미소) 두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각각 다른 서사와 감각으로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 수교 이전 첫 교류의 도시로 알려진 나주에서 재불 작가의 전시가 열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는 '화가의 숲\_연결의 존재들'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감각적으로 제시하며 공존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주 작은미술관에서는 '화가의 숲\_야생의 위로'를 주제로 자연이 건네는 위로와 회복의 정서를 담아 일상 속 숨의 시간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는 나주의 문화재생 공간인 나빌레라문화센터와 나주정미소를 생태적 서사로 재해석해 회복과 공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가의 숲\_연결의 존재들 2026. 2. 4 - 3. 31 나빌레라문화센터  
화가의 숲\_야생의 위로 2026. 1. 21 - 3. 4 나주 작은미술관  
주최: 나주문화재단 후원: 나주시, 나주시민회

작품 속 '숲'에 등장하는 추상적 형상은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명으로 은유하며 관람객을 자연의 일부로 초대한다.

'화가의 숲\_연결의 존재들' 전시는 2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화가의 숲\_야생의 위로' 전시는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나주 작은미술관에서 각각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천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는 자리"라며 "예술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자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강진군이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군민 모두가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월 7일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영화 보는 날' 행사를 운영한다.

개관 2년차를 맞은 강진영화관은 군민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21,058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이는 군민들의 꾸준한

## 강진영화관, 설 연휴 반값으로 즐기는 영화 어때요?

오는 2월 7일·14~18일, 군민 50% 할인 평일 확대 운영

관심과 더불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강진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은 이러한 성과에 부응하고,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2월에도 강진군민이라면 누구나

50% 할인된 가격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보는 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특히 2월을 맞이해 평일에도 주말과 동일한 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여러 계층의 군민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며 문

화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친지들이 함께 영화관을 찾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귀농·귀촌 정책 홍보의 현장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무안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네작가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를 제작·홍보하는 참여형 정책 홍보 사업으로,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농촌 생활과 정착 사례를 주민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발된 동네작가는 무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비롯해 농촌 생활과 영농 현장,

## 무안군, 2026년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주민의 시선으로 전하는 농촌 이야기... 도시민 유치 나서

정착 사례, 우수 마을 소개 등을 주제로 사진·영상·글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며, SNS를 통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활동비는 콘텐츠 제작 건당 3만 원으로, 월 최대 3건까지

10개월간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개인 SNS를 운영하며 귀농·귀촌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무안군민으로,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승현 인구정책과장은 "동네작가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삶을 전달하는 신뢰도 높은 홍보 방식"이라며 "귀농·귀촌 정책과 무안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1-450-4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 제공

## 광양중앙도서관, 청년 대상 '밀리의 서재' 구독 서비스 확대

분기별 선착순 100명 모집, 3개월 이용권 제공

광양중앙도서관이 청년층의 독서 습관 형성과 온라인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자책 구독 서비스 '밀리의 서재'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청년(미소청년)' 사업의 일환으로,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 맞춰 청년 세대가 일상 속에서 독서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밀리의 서재'는 베스트셀러와 신간 도서를 비롯해 자기계발서, 소설, 인문·교양서 등 약 22만 종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전자책 구독 서비스로, 선정된 참여자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양중앙도서관은 앞서 2025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광양시 청년 200명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참여자들이 약 3,400권의 전자책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운영 기간을 2월부터 10월까지로 확대하고, 총 3회에 걸쳐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이 가운데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을 우선 지원하며 분기별 선착순 100명에게 3개월간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용 기간은 ▲1분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분기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분기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보다나온 농어촌

#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